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주간 퀀틴전시 플랜] 채권금리, 달러화 안정시 KOSPI 반등 탄력은 강해질 것

- KOSPI 2,400선 지지력 확인 이후 변화의 징후 포착
- 삼성전자와 성장주의 조화로운 반등. 11월 FOMC 의사록 주목
- 통화정책 경계심리 완화, 채권금리/달러화 안정 = 성장주 반등, KOSPI 반등 탄력

이경민, kyongmi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 News] 통신서비스: 기업가치 올라가겠다!

- 통신3사 및 SK스퀘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기대 수준 상회
- KT, 자사주 1조원 매입/소각, SK스퀘어 NAV 할인율 50% 이하 및
- LGU+의 탄력적(0~20%) 자사주 매입/소각 등이 기대 수준 상회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주간 퀀틴전시 플랜]

채권금리, 달러화 안정시

KOSPI 반등 탄력은 강해질 것

- KOSPI 2,400선 지지력 확인 이후 변화의 징후 포착
- 삼성전자와 성장주의 조화로운 반등. 11월 FOMC 의사록 주목
- 통화정책 경계심리 완화, 채권금리/달러화 안정 = 성장주 반등, KOSPI 반등 탄력

KOSPI가 8거래일만에 2,500선 회복. 과도했던 불안심리 진정,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자율 반등으로 판단. 이번주 채권금리, 달러화 고점 통과/하향 안정 여부 관련

Issue : 경제지표 호조, 물가 불안 + 트럼프 리스크 = 채권금리, 달러화 상승압력 지속, KOSPI 변화의 조짐 포착. 중국 경제지표 호조와 한국 수출 모멘텀

경제지표 호조와 물가 반등, 지속되는 트럼프 리스크 우려에 미국 채권금리, 달러화 고공행진 지속. 미국채 10년물, 2년물 4.3% 하회. 문제는 25년 금리인하 기대. 25년 연내 두 번 이하의 금리인하 컨센서스 형성 중. 통화정책 기대의 정상화를 넘어 25년 타이트한 통화정책 우려로 전환, 트럼프 2기 내각 주요 인물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정책 기대, 불확실성 증폭

다만, 11월 저점 통과 이후 KOSPI 반등 과정에서 삼성전자 반등과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어울어지며 글로벌 증시대비 차별적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음.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압력은 여전하지만, 3분기 실적 시즌 이후 수급 패턴 변화 감지 중국의 정책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에 따른 등락 불가피. 하지만, 23년 하반기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더 강력한 24년 하반기 정책 드라이브 효과 유입 기대. 최근 중국 유동성 모멘텀 회복 중. 실물 지표, PMI도 예상치 상회. 경기 모멘텀 개선, 강화는 2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

Inflection Point : PCE 물가 Vs. FOMC 의사록. 매파적인 시장의 컨센서스 완화 고려. 채권금리, 달러 안정의 나비효과. 삼성전자 시총 비중 레밸다운, 선물 & 외국인 매매패턴 변화. KOSPI 계절성. 10월 약세, 11월, 12월 강세

현재 시장은 연내 한 번 또는 두 번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 중. 시장에 충분히 매파적인 스탠스가 선반영된만큼 비둘기파적인 문구나 스탠스에 시장 반응이 강하고, 민감해질 것으로 예상 11월 FOMC를 통해 금리인하 사이클에 대한 신외도 확보 필요. 스탠스 재확인된다면 채권금리, 달러화 하향안정 국면 재진입 예상

10년 5월 ~ 11년 4월과 21년 3월 ~ 6월 같이 반도체 하락이 제어된다면 반도체 주도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KOSPI 상승 가능. 당시 KOSPI 상승을 주도한 업종은 이익 개선 기여도가 높아지고, 이익 모멘텀이 강했던 업종. 향후 원화 강세 전환을 기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변화 가능. 외국인 순매수 강도 강해질 수 있음

KOSPI는 10월 부진, 11월 12월 강세 패턴 반복 12월 배당락으로 인한 선물 베이시스 변동 확대, 이로 인한 외국인 선물 매수 유입 - 프로그램 매수 대규모 유입 영향. 최근 KOSPI 상대적 부진이 반도체 업황/실적 불안에 이어 외국인 대량매도에 기인하고 있다면 반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Trading 전략: 실적대비 저평가주 & 낙폭과대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철강, IT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화장품/의류, 건설/건축 등 주목

KOSPI 2,550선대부터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을 언급해왔던 상황. KOSPI 2,500선 이탈은 단기 UnderShooting으로 판단. 비중확대 전략 유효.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경우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들의 반등시도 뚜렷해질 것. 다수의 업종들이 단기, 중기 측면에서 중요 지지권, 변곡점 진입. 단기 트레이딩은 물론, 중기 전략 측면에서 매집 가능

통신서비스업

기업가치 올라가겠다!

김화재 hjaeje.kim@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KT	Buy	53,000원
SK스퀘어	Buy	96,000원
LG유플러스	Buy	14,000원
SK텔레콤	Buy	77,000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	7.7	10.9	29.7
상대수익률	0.7	14.8	17.7	27.7



- 통신3사 및 SK스퀘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기대 수준 상회
- KT, 자사주 1조원 매입/소각, SK스퀘어 NAV 할인율 50% 이하 및
- LGU+의 탄력적(0~20%) 자사주 매입/소각 등이 기대 수준 상회

투자의견 비중확대(Overweight), Top-Pick KT 유지

통신3사 및 SK스퀘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전반적으로 기대 수준 상회

KT의 자사주 1조원 매입/소각, SK스퀘어의 NAV 할인율 50% 이하 목표, LGU+의 탄력적(0~20%) 자사주 매입/소각 등이 기대 수준을 상회한 정책들

KT를 Top-Pick으로 유지, TP 53천원, 28년까지 연평균 11%의 OP 성장 전망,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자사주 1조원 매입/소각, ROE와 주주환원 외에도 OPM 및 AI 등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등

KT, 주주환원도 밸류도 아첼레란도!

ROE, 28년 연결 9~10%(22년 8%, 23년 6.1%)

주주환원(기준), 별도 조정 당기순이익의 50%, 최소 DPS 1,960원

주주환원(추가), 25~28년 자사주 1조원 매입/소각

기타, 28년 연결 OPM 9%(22년 6.6%, 23년 6.3%)

기타, 23년 AI/IT 비중 6%, 1조원 → 28년 AI/IT 비중 19%, 3조원

SK스퀘어, 목표는 도전적, 방안은 현실적

ROE, 27년까지 COE를 초과하는 ROE 달성(22년 1.6%, 23년 -8.1%)

주주환원(기준), 경상 배당수입의 30% 이상 및 Harvest 성과의 일부

주주환원(추가), 24.10~25.3월 자사주 1천억원 매입/소각

기타, 27년까지 NAV 할인율 50% 이하(3Q24 할인율 66%)

LGU+, 의지와 현실 사이의 절충안

ROE, 중장기 8~10%(22년 8.4%, 23년 7.5%)

주주환원(기준), 별도 조정 당기순이익의 40% 이상, 최소 DPS 650원

주주환원(추가), 당기순이익의 0~20% 범위내에서 탄력적 자사주 매입/소각 및 기 보유 자사주 1천억원의 전량 또는 일부 소각

기타, IDC 매출 high-single 이상 성장, 디지털 비중 23년 6% → 중장기 25%

SKT, 기승전 AI

ROE, 26년 10% 이상(22년 8.1%, 23년 9.6%)

주주환원(기준), 연결 조정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기타, 30년 매출 30조원, AI 비중 35%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